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초조형 교육내용 개발

조 정 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Development of Contents in Fundamental Design Education for Fashion Design

Jungmee Cho[†]

Clothing & Textiles Major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접수일(2010년 4월 29일), 수정일(2010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20일)

Abstract

The carelessness of basic design form in education can result in a lack of creativeness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that will decrease adaptability in a rapidly changing fashion industry. If the fashion education just repeats the previous education of basic form of design, it will be impossible to create original value in fashion desig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haracterized program of the basic form of design education. This study develops concret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basic form of design that can be applied to fashion design through the study of the fundamentals and the concepts of the basic form of design. This study is the basis for the cultivation of talented designers with creativity, form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The research method is the fundamentals, specialty publications, and designs studied. As a result,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basic form of design to be used in fashion design education was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ontents of the basic form of design has been developed as the plane form that aims the perceptual and emotional effects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objects, through the use of dots, lines and planes that are the basics in forming practice and the expression of the abstract images. This suggests subjects composed of the various progressive forming conditions with the abstract dots and lines. In this subject and during the process of the idea, development, and fashion design, the overall unity, harmony, and the theory of gestalt (closure, proximity, and similarity) has been obtained. As a result, the content of the subjects was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that comprehensive decision making skills made from the process can lead to an improved sense of the fashion design.

Key words: Fashion design, Fundamental design, Education contents; 패션디자인, 기초조형, 교육내용

I. 서 론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간을 이루었던 패션산업은 대부분이 서구 패션산업의 주요 아웃소싱

국가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한국의 패션산업은 많은 동남아 저개발 국가를 활용하여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소비자들과 더불어 세계의 유명 고가 브랜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소매유통업을 담당하는 역할자로서 한국 패션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ngmee@catholic.ac.kr

본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들이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핵심이라 할 때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능력은 우리 패션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타 디자인 분야 들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멀티디자이너로서 타 분야에도 언제든지 대응 가능하며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영역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초조형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박혜숙, 2009; 신태균, 2004; 하상오, 2009; 현정아, 2008). 따라서 패션시장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교육에서 보다 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특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상업디자인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기초조형 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 기초조형 교육의 소홀은 창의력과 사고력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급변하는 패션시장의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 분야가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디자인 분야의 기초조형 교육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패션디자인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패션디자인만의 특성화된 기초조형 교육프로그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패션디자인 관계 전공이나 학과가 미술학부나 생활과학학부 아니면 의류학 관계의 독자적인 과로 존재하고 있어서 패션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이 각 대학마다 일관적이지는 않다. 또한 패션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미술이나 회화와는 달리 실용성이 증시되는 상업디자인으로 간주되어 기초조형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 위주의 실용적 조형 교육과정이 형성되어왔다. 더우기 미술대학에 위치하지 않은 전공들에서는 패션디자인만을 위한 기초조형 교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기초조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패션디자인 교육에 적합한 기초조형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양한 기초조형의 원리 및 개념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조형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창의력과 조형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겸비한 유

능한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기초조형의 전문서적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들을 통하여 기초조형의 개념 및 주요이론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조형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학생들과의 실제 실습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II. 기초조형 개념 및 주요이론

1. 기초조형의 개념

기초조형의 개념에 대해 여러 연구자의 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초조형은 ‘조형의 원리’로서 조형 및 조형행위에 있어서의 보편적이라 할 지식의 체계를 의미(신완식, 2003)하며, ‘기초조형’이라는 의미는 조형 과정의 입문 단계에 소용되는 개념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로서 조형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필수요소로서 논의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디자인에서 필요한 ‘깊이 있는 철학’과 ‘사색적 사고방식’을 배양하는 디자이너들의 ‘기초적인 사상’(문찬 외, 201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까지 발전하고 있다. 기초조형의 의미를 또 다른 시각에서 음미해 보면 기초조형은 모든 응용조형의 배후의 원초적 조형으로서 응용조형을 파생하게 한 원천이다. 조형을 표현하는 대상이 예술이든 기술이든 관계 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조형은 예술이나 기술이나를 막론하고 조형이 표현되는 곳에 존재하는 조형의 원천으로 또는, 직접표현이 되지 않은 은폐된 조형으로서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에서 발견한 기초조형의 가치와 의미를 기술, 또는 디자인에 전이하여 적용하거나 반대로 디자인에서의 것을 예술에 전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형이 활용되는 장르가 어느 분야이든 기초조형의 연구가 요청되며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조형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길순, 2003). 이상의 연구들에서 볼 때 기초조형이란 초보나 입문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조형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와 시각적 공통 언어의 습득을 의미한다는 것으로서 조형을 다루는 사람이 평생 습득해야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기초조형의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고찰

1) 조형

조형이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관념에서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2차원, 3차원 또는 다차원의 시·공간에서의 가시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형 예술은 대체로 물질적 재료를 써서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만이 성립되며 시각을 통한 감각과 정서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이길순, 2002).

2) 조형 요소

평면조형 작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개념요소(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와 구성요소(조형의 중국적 외향)를 꾸미는 시각요소로 구분하여 생각 할 수 있다. 개념요소는 점, 선, 면, 양감, 구도 방향, 긴장, 착시 등과 같이 불가시적이어서 실제의 것이 아니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개념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시각요소는 형태, 색채, 명암, 질감, 크기 등과 같이 실제로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개념적인 속성의 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선을 그린다. 이 가시적인 선의 길이는 물론 넓이와 부피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재료와 시도하는 방법에 따라 가시적으로 표현될 때 비로써 형태, 색채, 명암, 질감 등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외에 상관적인 요소로서 방향, 공간, 위치, 중량 등으로 앞의 요소들에 의해 표현되는 시각적,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권상구, 2003; 한석우, 2001).

3) 조형 원리

조형의 원리란 조형의 시각적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결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심미적인 연관 법칙이나 구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원리라고도 하며, 점·선·면·형·방향·색채·질감·양감·크기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표현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미의 규칙이다. 특히 그 형식은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져야만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디자인의 독창성이 찾아져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들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디자인이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조형의 원리를 습득하여 조형적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조형의 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일, 반복, 조화, 균형, 비례, 주조, 점이, 대비, 리듬, 강조, 공간, 변화의 원리로 요약 될 수 있다(김인혜, 2004; 아사쿠라, 1984/1999).

4) 게슈탈트의 원리(Gestalt Theory)

형태는 영어로 'shape', 독어로 'gestalt', 불어로 'forme'로 번역되며, 구조를 가진 어떤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 형상' 혹은 '조립'이라는 뜻으로, 다른 자극을 받아 수용된 것이 우리 내부의 심리적 메카니즘에 따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 대한 심리학적 메카니즘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게슈탈트의 원리가 있다. 형태의 인식에 대하여 지각심리학자(게슈탈트 심리학과)들인 베르트하이머(M. Wertheimer), 쾰러(W. Koehler), 코프카(K. Koffca)는 인간이 통일과 조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간은 각각의 형상들을 단순한 부분이 아닌 의미 있는 전체로서 조직 하므로써 시각적인 형태를 인식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부분의 속성이 전체적인 연관성에 종속된다는 결정원리(principle of relational determination)를 주장하였다(한석우, 2001). 특히 베르트하이머는 근접성(proximity), 폐쇄성(closure), 유사성(resemblance), 연속성(good continuation), 단순성(stereospecific symmetry)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문찬 외, 2010).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은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쓰이든 상호결합해서 쓰이든 간에 형태를 고립되고 무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전체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조형 이론은 '게슈탈트의 법칙 혹은 원리'라고 불리면서 '최대 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한다(김인혜, 2004; 이길순, 2002).

III.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초조형

1. 기초조형 교육의 목표

앞서 언급된 기초조형의 개념에서 볼 때 광의의 기초조형 교육은 단순히 전공 디자인 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이 아니라 조형의 원리와 보편적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교육으로 예술가로서의 전인교육을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기본토양을 마련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조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창의력과 예술가 및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이길순, 2003).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뮤즈운동에서부터 바우하우스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조형 교육은 예민한 관찰력을 길러 용구와 기능적 특질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힘을 길러주며, 양식이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표현의 범위를 넓혀 독창적이고 다각적인 객체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창조적 조직자로서의 조형 연구가의 기초적 훈련으로서 형, 색, 재료, 재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조형적 감각을 체득시키고 아울러 사물과 재료의 물리적 특성 및 구조, 표면상태, 매스의 배열 및 순수형태의 자유로운 처리에서부터 빛과 운동을 도입하고 공간구성에 이르기까지 조형 감각의 확장과 창조 능력의 고도화를 이룩하는데 있는 것이다(한석우, 2001).

2. 기초조형 교육의 발전과정

1919년에 설립된 독일의 국립 공예학교인 바우하우스(BAUHAUSE)는 현대 조형 교육과 조형적 사고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현대 기초조형의 주요 이론 및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근래에 들어 몇몇 학자들이 이들의 조형 철학을 21세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낡은 사상으로 치부하고 다양한 변혁적인 시도들을 하였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 바우하우스에서 사색적으로 검증했던 조형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문찬 외, 2010). 그들은 많은 전위적인 예술가들을 영입하여 형태, 색채, 공간, 형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한 조형 이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초조형의 실험과 기본적 이론들은 바우하우스의 예비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 활동과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실천에 옮겨졌으며, 그 근간을 형성하는 공통된 접근방법은 인간을 조형 원리의 중심에 두고 생물학적 기능의 분석에서 나아가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이르

기까지 철저히 분석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사고하며 표현하는 조형 연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하상오, 1996). 초기 예비학교를 이끌었던 요하네스 이텐(Joannes Itten) 지각에 대한 인식, 지적인 능력, 정서적 경험들을 개발하려고 애썼으며 이를 통하여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참신한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조형 능력을 배양하려하였다. 이텐의 기초 조형 교육은 ‘대비의 원리’를 기초로 했다. 재료와 질감의 연구, 형태와 색채의 연구, 리듬과 형태의 연구 등은 모두 대비의 관점에서 논해졌고 교육되었다. 이후 모홀리 나기(Lazlo Moholy-Nagy)는 예비과정 교육에 참가하여 구성, 균형, 공간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조형 감각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훈련을 강조 하였다(권상구, 2003). 와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1922년 이후 10년 동안 바우하우스에서 형태의 기본요소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는 형태의 인지는 우리 내부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개개인의 경험에 이루어지며, 형태를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점선면을 중요시했다. 그는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가지는 고유에 느낌을 주목하여 강의하였다(칸딘스키, 1926/2008). 이러한 바우하우스에서의 기초조형 교육의 발전과정은 교과내용 및 과정의 단계별 전개과정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기초조형 교육의 체계가 되고 있다.

3.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초조형 교육의 의의

디자인은 ‘기능’과 ‘형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원적인 개념이 대립하거나 융화되면서 발전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만큼 디자인에서 기능과 형태의 두 개념은 불가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형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디자인과 조형 표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이길순, 2002). 특히 패션디자인에서의 조형 표현은 인간 혹은 신체 또 기능이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제약 받게 된다. 제약의 요인으로는 이외에도 기술, 생산성, 트렌드 등을 들 수 있다. 더우기 근래에 와서는 트렌드를 중시해 복식디자인을 일상적으로 패션디자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패션디자인의 조형 문제를 논할 때 여러 가지 대립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 디자이너의 창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디자이너는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자신을 어떤 틀 속에 한정

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표현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패션디자이너들은 기능 등 외부요인은 디자인의 조형 표현에서 타협해야만 하는 요소로서 압박 받고 있고 지금까지 대체로 그러한 타협을 이루어 낸 것들이 실체화된 디자인으로 생산되어 일정한 공존의 틀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와 기능 등 외부요인의 공존은 새로운 개성시대를 맞아 평균적으로 이뤄지던 균형이 어느 한 분야의 탁월성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다. 때때로 어느 분야에서 독특한 가치를 드러낼 수도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의 흔들림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 현상으로 감성적 가치 승상에 의한 조형적 형태의 변화로 해석되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풍요한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로 조형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고 즐기며 표출되는 현상으로 보여 지고 있다(이길순, 2003). 최근 많은 서구의 전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는 조형적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디자인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외형적 형상의 신선함을 더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형적 형상의 우수성만으로도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식디자인에서 조형의 새로운 방법은 가치 있는 아이디어이며 탁월한 조형은 발명과 다름없는 창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조형 표현 능력이 곧 복식디자이너 능력의 기본요소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와 기능을 넘어 설 수 있는 조형 능력을 가진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복식디자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조형의 원리와 보편적 진리를 기반으로 한 전인교육을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기본 토양을 마련해 주는 기초조형 과정의 습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V.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초조형 교육내용 개발

1. 교육내용의 목표

아직 디자인 분야의 초보인 학생들이 모든 기초조

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교육내용은 의류학 전공 저학년 학생들이 조형의 기초적인 요소와 원리를 적용해 기본적인 표현을 시도하고 이것이 의상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체험하여 패션디자인에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교육내용은 기초평면 위에서 조형의 기본요소인 점·선·면을 사용하고 추상적 이미지, 기하학적 형태나 사물의 표현, 질감의 표현 등을 시도하여 지각적·감정적 효과의 다양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평면조형의 순수구성 위주로 개발되었다. 학생들이 추상적인 점과 선으로 단계별 다양한 조형 조건을 제시하는 과제를 기초평면에서의 발상과정, 복식의 형태 속에 적요시키는 전개과정, 기존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 자신의 작품을 대입시키는 패션디자인 적용의 세 과정으로 수행해가면서 디자인 요소와 원리 안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조화, 계슈탈트의 원리 등을 습득하여 조형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과 이것이 패션디자인 감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교육내용을 전개하였다.

2. 교육내용의 구성원칙

1) 타 디자인 분야의 기초조형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기초조형 교육의 실제적 방법론은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각 디자인 분야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소재와 접근방법을 통하여 평면 혹은 입체적인 구성작업을 통한 학생들의 실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법들의 공통적인 교육내용의 핵심은 각 분야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재료를 소재로 다양한 조형의 원리를 체험하고 이것들이 가지는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타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기초조형 교육과정들과 앞에서 분석한 패션디자이너들의 기초조형의 요소 및 원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패션디자인 교과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조형 교육내용 개발하였다

2) 본 교육내용은 기초평면과 조형의 기본요소인 점·선·면을 위주로 한 순수 평면 구성실습을 우선시 하였다. 발상과정에서는 기초평면이란 칸딘스키(1926/2008)가 정의한 것으로 작품의 내용을 담은 물질적인 면(화면)을 의미한다. 도식적인 기초평면은 두 개의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에 의해서 한계지어지고 이렇

게 구획됨으로써 그 주변 영역에서 자립적인 본질로 표현된 면이다. 따라서 기초평면은 학생들은 한계 지어진 영역에서 타 조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형에 집중하는 의도를 도와준다. 본 내용에서는 직사각형(15×20cm)의 기초평면을 사용하였다. 적용과정에서는 기본 원피스형태의 평면 실루엣을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약간의 비율은 수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숙달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실루엣도 개발하게 한다. 기존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적요하는 과정은 대상작품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자신의 작품을 적용시키는 디자인에 대하여 교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품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완성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3) 본 교육내용은 과제가 단계별 다양한 제한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우선 초보자가 단계별로 하나의 원리나 요소에 집중하여 실습할 수 있고, 숙달과정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조건의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성취도를 높여가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단계별 다양한 제한 조건은 제품별 다양한 제한 조건을 수용하고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해내는 디자이너의 기초역량을 배양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일차적으로 점을 중심으로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과 선을 중심으로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난이도는 우선 하나의 요소와 원리를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요소와 원리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게 구성되었다.

1) 점을 중심으로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

정형의 점 한 가지 요소만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점은 형에 있어 가장 단순하고, 또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 가지 원리나 어떤 내용을 표현해 보기 편하다. 점이 갖는 중요한 특성인 상관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를 체험하고 이를 습득 후에는 질감이나 특정 이미지를 표현하는 고급단계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점을 중심으로 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사례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단계 1-상관적인 요소로서의 방향, 공간, 위치, 중량감의 표현

시각적 표현목표: 크기가 같은 점은 다른 크기의 점들을 사용할 때 보다 조형 원리의 적용이 쉽다. 우선 한개의 점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여 기초평면에서의 변화하는 위치방위 공간중량감을 표현해 본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점을 배열하여 군집효과에서 나타나는 계슈탈트의 원리를 체험한다(패쇄성, 인접성, 유사성). 나아가 점이 테두리에 걸쳐졌을 때 느껴지는 운동감과 공간확장성을 표현해 본다.

과제1: 같은 크기의 원형태의 점을 사용. / 점이 겹치지 않을 것. / 한 개의 점을 사용하면서 시작하여 점차 점의 갯수를 늘려가는 단계를 거친다. / a. 점 전체가 기초평면의 테두리에 걸리지 않을 것. b. 테두리에 걸쳐도 됨(실습사례 1-1, 2, 3).

과제평가: 실습사례(1-1) 점의 위치에 따라 특정 요소를 강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점이 여러 개보다 더 집중력이 강할 수도 있다. 허리부분에 위치한 점은 허리의 곡선을 더 강조시키고 있다. 실습사례(1-2) 겹치지 않은 점이라도 일정 간격으로 연결되므로 해서 움직임의 궤적인 하나의 선으로 시선을 모을 수 있다. 실습사례(1-3) 옷의 테두리에 걸쳐져 있는 원의 형상은 활동감을 주고 공간이 옷이 라는 틀 밖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2) 단계 2-평면에 점의 크기나 중첩(重疊)을 통해 공간감이나 깊이를 표현

시각적 표현목표: 크고 작은 점은 거리와의 관계로 지각되기도 한다. 이럴 때 점과 점사이의 간격이나 거리는 시간의 경험이 곧 공간의 거리로 연상된다. 즉 간격이 좁으면 빠른 느낌을 간격이 넓으면 느린 느낌을 주며 시선은 큰 점에서 작은 점으로 흐르는 것을 표현한다. 또한 중첩의 효과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위에 겹쳐질 때, 앞이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깊이감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표현해 본다.

과제2: 동일크기만 사용하거나 다른 크기의 원형태의 점을 혼합사용 가능. / 점이 겹치는 것(중첩)도 허용(실습사례 2-1, 2, 3).

과제평가: 실습사례(2-2) 평면이지만 하나의 점이 다른 점과 겹쳐진 것이 표현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것처럼 깊이감을 준다. 실습사례(2-2, 3) 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시선이 이동해 가면서 운동감과 간격의 차이에 의한 리듬감을 준다. 시선이 작은 점에서 큰 점들로 흐르면서 큰 점들은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는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 크기의 변화와 중첩의 유무는 더 다이내믹한 운동감을 줄 수 있다.

<표 1> 점을 중심으로 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사례

과제내용	표현과정	발상	전개	적용
과제1: 같은 크기의 원형태의 점을 사용. / 점이 겹치지 않을 것, 한개의 점 사용. / b. 테두리에 걸쳐도 됨. 실습사례(1-1): 김지운, 가톨릭대				
과제1: 같은 크기의 원형태의 점을 사용. / 점이 겹치지 않을 것. / 여러 개의 점 사용. / b. 테두리에 걸쳐도 됨. 실습사례(1-2): 김미혜, 가톨릭대				
과제1: 같은 크기의 원형태의 점을 사용. / 점이 겹치지 않을 것. / 여러 개의 점 사용. / b. 테두리에 걸쳐도 됨. 실습사례(1-3): 신지희, 가톨릭대				
과제2: 동일크기의 원형태의 점 사용. / 점이 겹치는 것을 허용. 실습사례(2-1): 신지희, 가톨릭대				
과제2: 다른 크기의 원형태의 점 사용. / 점이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실습사례(2-2): 권수연, 가톨릭대				
과제2: 다른 크기의 원형태의 점 사용. / 점이 겹치는 것을 허용. 실습사례(2-3): 김지운, 가톨릭대				
과제3: 시각적으로 점이라 여겨지는 모든 형태의 점을 사용. 실습사례(3-1): 이인성, 가톨릭대				

<표 1> 계 속

과제내용	표현과정	발 상	전 개	적 용
과제4: 점을 다양과 질감과 문양으로 변형시킨 후 다시 구성함. 실습사례(4-1): 김민정, 가톨릭대				
과제4: 점을 다양과 질감과 문양으로 변형시킨 후 다시 구성함. 실습사례(4-2): 왕혜인, 가톨릭대				
과제5: 다양한 이미지의 주제를 원과 타원형을 만을 가지고 표현. 주제: 핵 폭발 실습사례(5-1): 왕혜인, 가톨릭대				

(3) 단계 3-개념적 형태의 점을 표현

시각적 표현목표: 점은 크기, 수량 위치, 형태, 밝기, 대비, 재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보인다. 크기가 있으면 기하학에서는 점이 아니고 면이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큰 원도 주위와의 관계에서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주위와의 관계에 따라 크기나 무게, 움직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표현해 본다.

과제3: 시각적으로 점이라 여겨지는 모든 형태의 점을 사용(실습사례3-1).

과제평가: 실습사례(3-1) 타원형도 공간과의 비례와 배치 위치에 따라서 점으로 인지될 수 있다. 원형의 점보다 추상적인 점은 보다 다양한 연상을 일으키는 회화적인 기능을 갖을 수 있다.

(4) 단계 4-시각적 요소로서의 질감의 표현

시각적 표현목표: 시각적 질감은 만져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질감을 말한다.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채워진 점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과제4: 점을 다양과 질감과 문양으로 변형시킨 후 다시 구성함(실습사례 4-1, 2).

과제평가: 실습사례(4-1, 2) 점 내부의 다양한 분할된 면이나 질감의 표현은 중량감이나 원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사물에 대한 연상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얼룩말의 문양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은 단순하지만 원시적인 자연미를 느끼게 한다.

(5) 단계 5-점으로 구체적인 주제나 이미지의 표현

시각적 표현목표: 점이 단순히 기하학적 도형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실적 이미지나 형상들을 표현하는 과정을 습득한다. 점은 외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움직임 소리 등을 리듬감이나 운동감, 속도감 등으로 사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과제5: 다양한 이미지의 주제를 원과 타원형을 만을 가지고 표현. / 교수가 지정해주는 지정주제와 학생 발상에 의한 자유주제로 구성. / 부가 과제: 자신의 표현 형식을 디자인의 이론과 원리에 의해 A4 반장 이상 설명할 것. / 지정주제의 예: ① 우주여행, ② 분수, ③ 탄력 있는 물체가 튀는 것, ④ 작은 물고기들의 움직임, ⑤ 고래의 수영, ⑥ 곰팡이, ⑦ Milk Crown, ⑧ 팝콘, ⑨ 여름의 태양(실습사례 5-1).

과제평가: 실습사례(5-1) 다양한 크기의 원과 타원을 이용하여 중앙의 강력한 힘과 방사상으로 퍼지는 핵 폭발의 위력을 표현.

2) 선을 사용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

선은 점의 운동 방향의 표시이며, 점이 이동한 경로이자 집합으로서 모든 형의의 윤곽이며, 기하학에서는 길이와 위치, 폭, 방향은 있으나 넓이와 두께는 없는 것을 일컫지만 조형적 의미에서는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는 것을 선으로 인지한다.

데이비드 라우어(David Lauer)는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였다. 이론적으로 1차원에 존재하지만 시각적으로 3차원에 생존하는 이러한 선은 성격과 무게, 움직임과 행동, 윤곽, 연상, 감정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선의 운동 방향과 감각은 반복에 따라 리듬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한석우, 2001).

선을 이용한 조형 실습은 매우 다양한 결과 도출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직선에 한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직선에 의한 면 분할, 직선의 굵기 변화에 따른 조형성, 직선의 질감 변화에 따른 조형성을 위주로 실습과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본 조형 구성조건은 과제를 선으로 이루어 졌다는 인식이 되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선의 기능을 따라야 한다. 즉 이들은 장식적인 형태나 삼각형, 원형 등의 형태, 혹은 그래픽 심볼, 혹은 회화적인 의미를 형성하는데 쓰이는 것을 제한 하였다. 선을 중심으로 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사례를 <표 2>에 제시하였다.

(1) 단계 1-선에 의한 기초평면 분할

시각적 표현목표: 선이 연속될 때 한 면의 경계를 만들고 이것은 한정된 공간을 분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의 분할에 의한 평면구성은 조형 행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의 분할 능력에 따라 레이아웃의 우수함이 결정된다. 특히 옷에 있어서 분할선은 프로포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이다. 선에 의한 면 분할은 우선 한개의 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평면의 다양한 분할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어 수직, 수평, 사선 등 선의 방향성과 동시에 면의 분할에 의한 비례감을 단계별로 습득한다.

과제1: 0.5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 동일./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 a. 2개 이하 사용 b. 3개 사용, ② 수직, 수평, 사선, ③ 사선, 사선(실습사례 1-1, 2, 3).

과제평가: 실습사례(1-1) 수직, 수평선에 의한 평면 분할을 옷에 적용하여 착상상태에서 새로운 프로포션을 만들거나 특정 부위에 시선이 집중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습사례(1-2) 2개의 수평선에 의해 나누

어진 두개의 떨어진 공간을 사선을 통해 연결시켜 주고 사선이 갖는 방향성으로 시각적 이동감을 주고 있다. 실습사례(1-3) 가는 사선이 무작위적으로 반복된 겹침에 의해 하나의 면으로 지각되는 부위가 생긴다. 캐슈탈트의 폐쇄의 원리가 적요 될 수 있다.

(2) 단계 2-선의 굵기 차이에 따른 시각적 느낌의 차이를 체험

시각적 표현목표: 일반적으로 선은 ‘가늘다’라는 느낌을 전달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이다. 기하학에서는 길이로만 표현되지만 디자인에서는 선이 다양한 굵이를 가질수있다. 선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지각심리학적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비율의 분할이라 할지라도 선의 굵기에 따라 비례감이 변할 수 있다. 굵은선은 집중력이 강하지만 가는 선도 공간에서의 위치에 따라 굵은선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과제2: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에 차등을 둬./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② 수직, 수평, 사선, ③ 사선, 사선(실습사례 2-1, 2, 3).

과제평가: 실습사례(2-1, 2) 수직선,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한 면 분할과 동시에 선의 강약에 대비에 의한 울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실습사례(2-3) 굵기에 대비가 되는 사선을 많이 사용한 디자인이다. 사선은 수직선과 수평선에 비해 불안정하지만 변화가 많으며 역동적이다, 운동감에서 공간을 가르는데는 달리 활동력이 있는 현대적이고 젊음이 넘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3) 단계 3-선의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한 구성에 의해 선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해본다.

시각적 표현목표: 일차원적인 선도 표현방법에 따라 3차원적인 공간을 표시할 수 있다.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하여 원근이 있는 공간감과, 전진감, 리듬감 등을 표현한다.

과제3: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하여 구성./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② 수직, 수평, 사선, ③ 사선, 사선(실습사례 3-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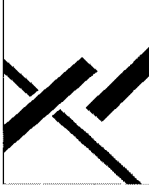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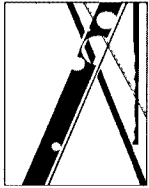


과제평가: 실습사례(3-1) 수직선과 수평선의 직각 교차와 선의 굵기의 대비는 움직임과 속도감, 긴장감을 강화 시켜준다. 굵은선보다는 가는선이 섬세한 속도감을 더 잘 표현해 준다. 실습사례(3-2) 상대적으로 굵은선의 멈춤과 교차의 조합은 진행감보다는 원근감과 깊이감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4) 단계 4-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표 2> 선을 중심으로 한 평면 기초조형 실습사례

과제내용	표현과정	발상	전개	적용
과제1: 0.5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 동일. /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 a. 2개 이하 사용. 실습사례(1-1): 권수연, 가톨릭대				
과제1: 0.5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 동일. / b. 3개 사용, ② 수직, 수평, 사선. 실습사례(1-2): 김미혜, 가톨릭대				
과제1: 0.5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 동일. / ③ 사선, 사선. 실습사례(1-3): 최수아, 가톨릭대				
과제2: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에 차등을 둬. /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실습사례(2-1): 이인성, 가톨릭대				
과제2: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에 차등을 둬. /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실습사례(2-2): 김미혜, 가톨릭대				
과제2: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선의 굵기에 차등을 둬. / 방향성 - ③ 사선, 사선. 실습사례(2-3): 왕혜인, 가톨릭대				
과제3: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하여 구성. / 방향성 - ① 수직, 수평. 실습사례(3-1): 김지윤, 가톨릭대				

<표 2> 계 속

과제내용	표현과정	발 상	전 개	직 용
과제3: 2cm 이하의 직선을 사용,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하여 구성. / 방향성 - ㉓ 사진, 사진. 실습사례(3-2): 권수연, 가톨릭대				
과제4: 4cm 이하의 직선을 사용하며 선에 새로운 질감을 부여한다. 실습사례(4-1): 김미영, 가톨릭대				
과제4: 4cm 이하의 직선을 사용하며 선에 새로운 질감을 부여한다. 실습사례(4-2): 왕혜인, 가톨릭대				

질감의 선을 표현하고 이를 사용하여 선구성을 한다.

시각적 표현목표: 선은 그 형태나 질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적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선은 옷에서 외곽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직물의 재질적 특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은 패션디자인의 세부적 디테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질감에 대한 창조적 개발 능력의 습득은 패션디자인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동원하여 창조적인 질감과 형태의 선을 표현해 본다.

과제4: 4cm 이하의 직선을 사용하며 선에 새로운 질감을 부여한다. 선을 손상시키거나 절단(knife or hand)하여 새로운 느낌의 선을 만들거나 다양한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질감의 선을 사용(실습사례 4-1, 2).

과제평가: 실습사례(4-1) 동양의 수묵화 같은 붓의 터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질감의 선을 표현한 작품이다. 실습사례(4-2) 직선에 펀치 등을 사용하여 선에 손상을 가해 새로운 느낌의 질감을 만들었다. 뿔린 구멍사이로 다른 선이 지나가게 하여 입체적 표현효과를 증가시켰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서의 기초조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기초조형의 원리 및 개념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에 적용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조형 교육내용을 개발하기위하여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초조형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점, 선을 중심으로 단계별 교육내용을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순수 평면구성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1차적으로 점구성은 5단계, 선구성은 4단계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점구성은 1단계: 상관적인 요소로서의 방향, 공간, 위치, 중량감의 표현, 2단계: 평면에 점의 크기나 중첩을 통해 공간감이나 깊이를 표현, 3단계: 개념적 형태의 점을 표현, 4단계: 시각적 요소로서의 질감의 표현, 5단계: 점으로 구체적인 주제나 이미지 표현의 5단계를 습득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선구성은 1단계: 선에 의한 기초평면 분할, 2단계: 선의 굵기 차이에 따른 시각적 느낌의 차이를 체험, 3단계: 끊어짐과 멈춤, 교차, 다시 시작을 조합 하여 원근이 있는 공간감과 전진감, 리듬감 등을 표현, 4단계: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질감의 선을 표현하고 이를 사용하여 선구성을 시도하는 4단계의 과정을 제시

하고 학생들과의 교육실습을 통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습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학생평가 결과 단순한 점, 선을 사용한 실습은 우선 디자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비미술전공 학생들에게 디자인 작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다양한 기초조형의 원리 및 개념을 정확히 습득하여 더 높은 수준의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아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조형, 교육내용의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패션디자인에서의 조형 교육은 섬세한 관찰력을 기반으로 재료와 용구의 기능적 특질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힘을 길러주며, 양식이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표현의 범위를 넓혀 독창적이고 다각적인 객체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패션디자인에 적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조형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창의력과 조형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유능한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혜. (2004). *기초디자인-점/선/면*. 서울: 미진사.
- 권상구. (2003).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 문찬, 김미자, 신희경, 임남숙, 이상훈. (2010). *기초조형 Thinking*. 서울: 안그라픽스.
- 박혜숙. (2009). 디자인 전공을 위한 계열 기초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1), 121-128.
- 신완식. (2003). 제품디자인의 교육적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2), 137-149.
- 신태균. (2004). 디자인 발달 기초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3), 67-76.
- 아사쿠라, 나오미. (1984). *순수미술 디자인 분야를 위한 평면구성*. 김학성, 조열 역 (1999). 서울: 조형사.
- 윤여향, 이영춘. (2006). 기초디자인 교육용 사이버 강좌 개발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7(4), 433-446.
- 이길순. (2002). 판재적층기법의 입체디자인 조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3(2), 179-189.
- 이길순. (2003). 디자인 기초조형의 실제적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145-152.
- 칸딘스키, 와실리. (1926).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역 (2008). 서울: 열화당.
- 하상오. (1996). BAUHAUS의 조형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4, 209-219.
- 하상오. (2009). 한국의 대학 기초조형 교육모델 제안. *한국디자인포럼*, 23, 125-136.
- 한석우. (200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 현정아. (2008). 디자인대학의 기초조형 교육에 관한 연구(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8(1), 4-63.